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29화)

다섯째 천사의 심령을 강제로 점령하고자 하는 하나님

6절: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

- 1) 빛의 몸이 인간의 육신으로
- 2) 다섯째 천사를 점령하고자 하는 하나님

7절: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아담인 일곱째 천사

- 1) 피란길에 오른 다섯째 천사
- 2) 2차 점령을 시도하는 하나님
- 3) 나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
- 4) 대규모 야외집회를 개최함
- 5)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 6) 1950년 중반, 감람나무에 대한 교계의 해석

2) 다섯째 천사를 점령하고자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장전술: 다섯째 천사를 대장 마귀의 충실한 종으로 내세워

성경에 첫째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아담이 사망을 삼키는 이기는 영으로 자랄 수 있게 영적으로 담당하는 영모(靈母)라고 불려졌으며, 이 영모님은 성경 상 영적 동정녀에 해당하는 다섯째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천사를 점령한 하나님께서 육천 년 전에 잃어버렸던 두 씨 중에 하나, 즉 여자 가운데 해와 이긴자를 찾아서 완성시켜야 했는데, 그 해와 이긴자가 성경 상에 여섯째 천사에 해당합니다. 두 씨 중에 나머지 하나는 둘째 아담 조희성님이며 곧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일곱째 천사에 해당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위(二位)를 나누어 일위(一位)의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락되어 긴긴 세월 동안 숨어 지내왔는데, 그 후로 육천 년 만에 그 일위(一位)의 하나님이 두 씨, 즉 잃어버렸던 이위(二位)를 천신만고 끝

에 겨우 찾으신 것입니다. 일위의 하나님은 육천 년 전에 마귀에게 먼저 사로잡혔던 해와를 마귀 옥에서 구출하여 잃어버렸던 일위(一位)를 되찾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와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일위(一位)와 해와의 일위(一位)가 합하여 이위(二位)의 해와 이긴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이위(二位)의 해와 이긴자가 육천 년 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아담을 마귀 옥에서 구출하여 잃어버렸던 또 하나의 일위(一位)를 되찾은 다음에, 해와 이긴자 속에 계신 이위(二位)의 하나님 영이 육천 년 만에 되찾은 일위(一位)의 아담 이긴자를 점령하여 삼위일체(三位一體)의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일위(一位)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이위(二位)를 회복하여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여전히 대적 마귀의 감시망을 피해야 하며 하나님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고 사망권세를 쥐고 마귀가 집권하는 세상이기에, 마귀세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는 대적 마귀의 감시망을 피해야 하며 여자 가운데 해와 이긴자와 남자 가운데 아담 이긴자를 배출하여 이위(二位)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위(一位) 하나님은 다섯째 천사에 해당하는 박태선 장로를 타고 마귀를 능수능란하게 기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위(二位)에 해당하는 해와와 아담을 이긴자로 길러내는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천사 박태선 장로의 심령을 강제로 점령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섯째 천사를 이용한다는 사실조차 어느 누구도 전혀 감새를 채지 못하게끔 대장마귀의 충



하나님의 기명을 쓴 예수가 판을 치는 세상

실한 종으로 다섯째 천사를 내세워 철저히 위장하였습니다.

마귀의 지혜를 역이용하는 하나님의 기만전술, 예수의 탈을 쓰다

육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마자 천국이 마귀 나라가 되었고, 이 마귀 나라가 오늘날 마귀와 하나님의 병존체로 되어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죄악 세상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양심, 생명)을 마귀 영육(靈獄)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천국(死後天國)'이라는 교묘한 이념을 세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마귀 쪽이나 하나님 쪽에서도 둘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 속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죽는 현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자의 영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 입장에서 마귀 자신이 사람 속의 마귀 영육에 갇힌 영혼을 아급야급 쫓아 먹으면서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던 것입니다.

우둔한 마귀는 처음에 '사후영생(死後永生)'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 말을 접한 사람들은 '아예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죽은 후에 영생을 믿으라고... 여기에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 하고 마귀의 술수에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사후영생(死後永生)'이라는 말 대신에 '사후천국(死後天國)'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습니다. 사실 '사후영생(死後永生)'이라는 말이나 '사후천국(死後天國)'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뜻은 같습니다. 영생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후천국(死後天國)'의 말을 쉽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분별력이 다소 모자라는 사람의 약점을 마귀가 교묘히 파고들은 성과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 법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른 결과이기에 죄를 범하고 죽은 자는 지옥 간다고 해야 맞는 말이

지, 죄값으로 죽은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아!' 하고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마귀는 이 세상에 공중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선전하기를, "이 예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번제물로서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는 인류의 구세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선전하는 마귀의 꾀에 인류의 절반 이상이 빠져들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사후에 나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확보한 것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적극적으로 '오직 예수!' 라는 피켓을 들고 전도활동을 하기도 하며 그들의 예배당 창문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여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눈에 잘 띄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의도대로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범람하였습니다. 일위(一位)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의 기명을 쓴 예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감시망을 피해 잃어버렸던 이위(二位)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마귀의 지혜를 역이용하는 기만전술이 필요하다.' 고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일위(一位) 하나님은 마귀 세상을 뒤집기 위해 최우선으로 다섯째 천사에 해당하는 박태선 장로를 기만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천사도 철저히 예수를 구원의 주(主)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주인을 분별 못하는 다섯째 천사

6.25전쟁 때, 서울에서 살던 다섯째 천사가 미처 남쪽으로 피난가지 못하고 방안 구들장 속에서 숨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찌는 더위로 땀범벅이 된 채 쪼그리고 앉아서 있으면, 모기는 얼굴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

고 석탄재는 쿡쿡멍으로 날아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이십여 일을 지내는 동안 간절한 기도생활의 도수는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살은 다 말라 빠지고 뼈만 남아 해골같이 되면서도, 심령은 늘 배부르게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들장 속에 있는 다섯째 천사의 입에 하늘나라의 생수를 넣어주셨습니다. 입 안으로부터 뱃속까지 시원한 물줄기가 계속 연결되는 생수 은혜를 체험한 다섯째 천사는,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로부터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로 육천 년 간 자자손손 핏줄기를 타고 사람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나' 라는 주체의 인식이, 원죄가 되는 선악과요 하나님을 사로잡은 마귀 영입니다. 이 '나' 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 영이 다섯째 천사의 마음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천사는 생수의 주인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일위(一位) 하나님은 다섯째 천사의 마음을 주장하는 '나' 라는 주체의식의 마귀 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영이 다섯째 천사의 '나' 라는 주체의식을 주관해야만 되었는데, 이는 다섯째 천사를 이용하여 잃어버렸던 이위(二位)를 회복하려고 만대 전부터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들장 밑에 숨어 지내던 다섯째 천사에게 강제로 생령의 생수를 투입하고 그의 마음속에 점령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차에 실패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2차로 기회가 생길 때를 기다리면서 온갖 지혜를 썼습니다.*

박한수

축승리절



경축 참가자들의 퍼포먼스와 신도들의 흥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사회자 김정흠 승사



언제 들어도 시원하고 친한 감동을 주는 무궁화관현악단



무궁화합창단의 화음과 피아노 멜로디는 환상적이었다



진혜제단 이창선 승사가 장구춤 무대에 올라 멋진 품으로 장단을 맞추고 있다



강강중창단(여성중창단)의 퍼포먼스는 오늘 행사의 압권이었다



부산제단 신도들의 제창 시간에 신도들도 모두 호응하며 흥이났다



리준경의 테마가 있는 노래는 항상 삶과 신앙의 의미를 준다